

2천억원 투입 자연복원 보다 친수·문화 공간 조성 열올려

광주천 2021년까지 대대적 환경정비...효과 거둘까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해 문화·생태·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과 별개로 2025년까지 국비 등 1315억원을 투입, 광주천으로 흘러 드는 오염물질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렇다면 과거 무도산과 함께 광주의 상징과도 같았던 광주천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광주시 "시민과 동·식물 모두 찾아들게" = 광주시가 이날 내놓은 사업계획안을 보면, 향후 5년 안에 광주천에 사립도, 동·식물도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우선 엿보인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광주천 수질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밤새 나는 물대신 버려지는 지하수나 폐쇄 예정인 상수원에서 1~2급수 물을 하루 10만여 상류까지 끌어와 흘려보내는 계획이 담겼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이 사업과 별개로 국비 등 1315억원을 들여 광주천 유입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광주천 좌·우안 주변 35km 구간에 오수간선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장마철 하수관이 역류해 오염물질이 광주천으로 흘러 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깨끗한 물을 상류에 붓고 광주천으로 흘러 드는 오염물질을 차단, 냄새도 나지 않고 시민들이 언제든 손발을 담글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광주시 목표다.

수질 개선과 함께 광주시는 광주천을 단순 도심 하천이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시민들이 수시로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광주천 상류부터 하류(영산강 합류부)까지 전 구간을 생태보존조 → 생태체험조

상류에 수달·어류 서식처

물놀이 체험·생태학습장 조성

문화·생태·휴식공간으로

환경단체 "지류 살려 유량 확보를"

→생태문화조 →생태휴양조으로 나누고, 상류에는 수달 및 어류 서식처를 만든다. 수질정화시설도 상류에 심는다. 생태문화조에는 물놀이 체험장, 자연생태학습관 등을 건립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류 주변에는 생태관찰 학습시설, 다목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을 심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절차도 추진 중이다.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 등 이상기후가 빈번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홍수예방 등 치수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할 뿐 아니라, 국비 투입으로 안정적인 하천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환경단체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는 게 최선" = 사실 광주천 정비 및 친수공간(간설) 확보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 환경부와 함께 69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과 주변 정비 사업을 벌였다. 이때 광주시는 유량이 부족한 광주천에 물을 끌어와 흘려보내는 시설을 구축하고, 친수 시설도 확충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광주시의 광주천 정비 계획을 두고 "처음이 아니다. 근본적 처방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27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열린 새천년 전남 비전 보고회에 참석한 역대도시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기 제25대 도시사, 허경만 제31,32대 도시사, 전석홍 제22대 도시사, 김영록 현전남도시사, 고건 제18대 도시사, 김창식 제21대 도시사, 문창수 제23대 도시사, 조규하 제30대 도시사, 백형조 제26대 도시사.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수질이 나쁘고 유량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선 분류 정비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류를 살려 광주천으로 물이 계속 흘러 들게 하는 방법을 포함, 유량 확보가 '근본적 처방'이며, 이 부분에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광주시가 자연 복원보다 친수·문화공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본류 북계간(양동) 복원 및 지류 폐천 복원 계획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광주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지류를 살려 물이 흘러 들게 해야 한

다. 북계간 복원, 지류 복원은 도시열섬 완화나 도시형침수피해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모두 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가 제시한 목표중 하나인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 조성'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동물의 이동과 연결성(생태축)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광주천 상태에 만족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시가 광주천 정비에 나서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친수공간·문화시설 확충에만 열을 올린다면 시민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크루즈선 띄우고 셰일가스 저장고 유치" 역대 지사들 '새천년 전남' 아이디어 봇물

김영록 지사 보고회 8명 참석

도정 발전 다양한 방안 제시

"남해안신성장광벨트의 첫 사업으로 '명랑 크루즈'를 띄워봤으면 합니다."(제18대 고건) "마한의 역사를 정립시켰으면 합니다."(제22대 전석홍) "천사대교에 이어 연륙-연도사업을 서둘러 완성했으면 합니다."(제21대 김창식) "미국에서 남아도는 셰일가스 아시아 저장고를 전남이 유치했으면 합니다."(제30대 조규하) "출산을 높여서 사람이 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산강의 기적을 이뤄주기를 기원합니다."(제23대 문창수)

역대 전남지사들이 27일 김영록 전남 지사의 초청으로 목포 상그리아호텔에 모여 전남의 '새천년 전남'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역대 전남지사를 초청해 도정에 대해 보고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만이다.

이 자리에는 제18대 고건 전 총리를 비롯해 제21대 김창식, 제22대 전석홍, 제23대 문창수, 제25대 최인기, 제26대 백형조, 제30대 조규하, 제31~32대 허경만 전 전남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전임 지사들에게 전남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메디컬 허브, 드론산업 클러스터, 남

해안신성장 광벨트, 은퇴없는 건강관 광도시 등을 소개하고 자문을 구했다.

최인기 전 전남지사는 "한전공대 유치는 전남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의 인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한전공대에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형조 전 전남지사는 "정도 1000년을 맞은 전남도가 앞으로 1000년에는 더 융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허경만 전 전남지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당장 현실 문제보다는 한 발 앞서 지역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전남지사들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지사와 참석한 간부들을 격려한 뒤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벗고 뛰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반가운 봄비와 함께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조언, 자문들을 도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회답했다.

전임 지사들은 보고회를 마친 뒤 김 지사와 함께 지난 4월 개최된 신안 천사대교를 시찰한 뒤 귀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靑,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원에 "사실관계 밝혀지게 노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답변

"수사체계 말씀드릴 단계 아냐"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참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알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등을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3월 29일에 게시돼 한 달간 24만 529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박 비서관은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1기 특조위는 2015년 7월에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6월에 정부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기 특조위는 이처럼 과거 정권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속에서 1기 특조위가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참사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5주기 당시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우리가족 여행예보 많음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호남국제관광박람회

5. 31(금) - 6.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외 문화 관광행사와 체험프로그램 한가득

하나투어 현장이벤트&경품

- 100% 선불증정 물품이벤트
- 호텔숙박권 제공 주점 이벤트

초특가 여행상품 & 지역별 특전

하·동여미인까지 최대 5만달러까지 적립

여행축제 즐기고 여름휴가 준비하러 오세요

중국/마카오/러시아/몽골	일본	동남아/대만
<p>몽골</p> <p>1,199,000원~</p> <p>울란바타르/테를지 5일, 6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5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3월25일 7/21, 8/5, 8/13, 8/17, 4월5일 7/21</p>	<p>후쿠오카</p> <p>399,000원~</p> <p>후쿠오카 3일, 4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2월25일 3월4일 3월13일 3월22일 3월31일</p>	<p>보라카이</p> <p>490,000원~</p> <p>보라카이 4일, 5일 라카멜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4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3월4일 3월13일 3월22일 3월31일</p>
<p>블라디보스톡</p> <p>559,000원~</p> <p>블라디보스톡 4일, 5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3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월, 수, 토요일 2월25일 3월4일 3월13일</p>	<p>오미타</p> <p>737,000원~</p> <p>오미타/유우인벳투 3일, 4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월, 수, 3월4일 3월13일</p>	<p>세부</p> <p>497,000원~</p> <p>세부 5일, 6일 솔레이리조트</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4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화요일 3월5일 3월14일 3월23일 3월31일</p>
<p>다낭</p> <p>569,000원~</p> <p>다낭/호이안 4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4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화요일 3월5일 3월14일 3월23일</p>	<p>홍콩/마카오</p> <p>677,000원~</p> <p>홍콩/마카오 4일, 5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3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화, 목요일 3월4일 3월13일 3월22일</p>	<p>상해</p> <p>329,000원~</p> <p>상해/항주/주지각 4일, 5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4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3월 4일 3월 13일 3월 22일 3월 31일</p>
<p>모사카</p> <p>739,000원~</p> <p>모사카/고트나라 4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월, 수, 토요일 3월4일</p>	<p>도쿄</p> <p>809,000원~</p> <p>동경/히코네 4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4,400,00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화요일 3월4일</p>	<p>방콕</p> <p>439,000원~</p> <p>방콕/파타야 5일, 6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4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수, 목요일 3월 5일 3월 14일 3월 23일 3월 31일</p>
<p>대만</p> <p>574,000원~</p> <p>대만/지우펀/야후 4일</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4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매일 운항 3월4일</p>	<p>코타케나발루</p> <p>699,000원~</p> <p>코타케나발루 6일, 6일 시내 특급</p> <p>항공차량 가이드+가사경비 530~선박명예 있음</p> <p>운행일 목요일 3월 5일, 일요일 3월 4일</p> <p>#비행기도착 #비행기출발</p>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가여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가능함.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박명예]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박명예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박명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관광사적자 등록번호 제206400-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편별 항공/버스/택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천/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박명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박명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박명예의 금액 및 선박명예 및 선박 대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건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한일) *여행 유의 *여행 자체 *철수 권고 *여행 금지